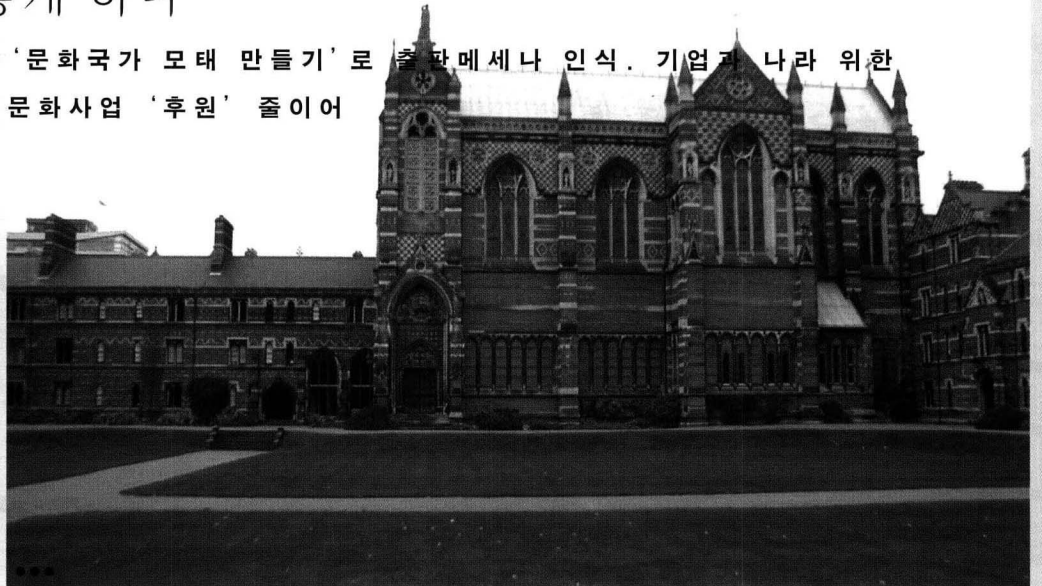


# 해외에선 어떻게 하나

‘문화국가 모태 만들기’로 출판메세나 인식, 기업과 나라 위한 문화사업 ‘후원’ 줄이어



- 뉴욕 공립도서관
- 록펠러재단
-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선진국에선 단순한 이윤추구를 넘어 사회로의 환원과 기업홍보 전략으로도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 각국의 메세나협회는 그런 문화적 지원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유럽은 출판부문 지원을 아우른 기업의 메세나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다. 물론 선진국들도 출판보다는 문화예술 부문 지원에 편중돼 있다. 그러나 도서는 제한된 날짜와 시간이 없어 오래도록 누릴 수 있는 이점을 가진다. 단기간에 걸쳐 끝나는 공연 못지않게 문화적 지식과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출판부문을 아우른 문화적 지원, 곧 선진국들의 기업메세나를 개괄한다.

일반적으로 영국과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메세나Mesenat’ 대신 ‘스폰서십Sponsorship’이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다. 조세 제도상 스폰서십은 사업지출로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어 ‘자선’보다는 ‘후원’이라는 의미에 비중을 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자선적 성격을 강조하는 프랑스는 ‘메세나’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예술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 유럽 출판 메세나 \_ 프랑스, 미국, 독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국가가 주도하는 문화지원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유럽은 메세나 활동이 가장 활발하다. 문화후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긍정적인 인식으로 상당수의 중소기업들도 기업메세나를 활발히 시도하고 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으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사회에 부유를 환원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우리나라와 비교되는 점이다.

프랑스 \_ 예술위원회(ADMICAL)를 중심으로 150개의 회원사가 활동하고 있다. 영화를 비롯해 주로 음악장르에 대한 후원을 하고 그 중 대형 보험그룹인 GAN은 영화산업을 지원한다. 1987년 칸느영화제를 기념으로 영화재단을 발족시킨 GAN의 주된 사업은 영화문화재의 복원, 영화배급의 활성화 등이다. GAN은 예산부족으로 진행되지 못했던 무성영화를 복원하고 신인감독을 발굴했다. <텔리카트슨>의 감독 장 피에르 주네는 이런 도움으로 할리우드에서 인정받아 <에이리언4>를 맡게 됐다.

미국 \_ 1967년 설립된 BCA를 중심으로 106개 회원사를 두고 있는 미국은 ‘메세나의 천국’답게, 특히 출판과 책문화 지원에도 두드러진 움직임이 보여왔다.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는 1881년, 스코틀랜드 던퍼민에 도서관 건물 기부로 시작으로 그후 2,800여 개의 도서관 건립을 도왔다. 뉴욕공립도서관도 1901년에 520만 달러를 기부한 그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1911년에는 대학 교육시설의 재

정적인 원조와 사회과학과 교육법 개선을 위해 카네기재단을 창립했다. 한편, 1913년 뉴욕에는 인류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실업자 록펠러에 의해 록펠러재단이 설립됐다.

컴퓨터기업인 IBM은 문화지원을 포함한 기업의 스폰서십을 강조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1956년부터 지역 내에 있는 문화관련단체인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등을 지원했다. 1998년부터는 세계문화재 복원과 각종 문화이벤트를 지원하는 '이컬처 프로젝트E-Culture Project'를 실시했고 인터넷을 통한 미술관 관람과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하는 등 최근에도 문화후원이 계속되고 있다.

독일 \_ 독일 바이엘사는 본사가 위치한 레버쿠젠에서 1986년 한 해 동안 50회의 음악회, 26회의 연구, 10회의 공연, 8회의 전시회를 후원해 공해기업이라는 오명을 벗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활동에 결정적 기여를 한 기업으로 이미지 제고효과를 누렸다. 원자력발전 관련 대기업인 프랑스의 EDF도 공해기업이란 회사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었다. 이의 개선을 위해 특수조명기술을 개발하고 파리에펠탑 등의 문화유산에 무료로 설치해 문화기업의 이미지를 구축했다. 이처럼 기업에서는 메세나 활동을 통해 이미지 개선과 더불어 문화예술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이 밖에 독일은행 도이체방크는 기업에서 소유하고 있던 작품들을 헌납해 베를린에 구겐하임 재단을 설립했고 알리안츠생명과 루프트한자항공은 해마다 열리는 컨템포러리댄스페스티벌인 '라이프치히 유료 신'을 후원하고 있다.

영국 \_ 1327년, 토머스 커브햄 주교의 기부로 옥스퍼드 보들리언도서관이 건립됐다. 사실 옥스퍼드대학은 재정난이 심각해 도서관이 없었다. 1598년 토머스 보들리가 보유하고 있던 장서를 기증하고 기부한 돈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됐다. 교직원회 건물에 부속돼 있는 도서관이 전부였던 옥스퍼드 대학은 '보들리언 도서관'이란 이름으로 1602년 다시 태어났다.

이전, 개인의 후원을 넘어 현재 메세나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1,367개 사로 많은 편이다. 그들은 기업의 사회책임(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야말로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고 믿고 있다.

이탈리아 \_ 밀라노 중심지역에 위치해 '밀라노의 오페라 하우스' 역할을 하고 있는 라 스칼라 극장은 오스트리아의 여왕 마리아 테레사의 후원 아래 1778년에 세워졌다. 200여 년 동안 세계적인 오페라 초연이 열리고 오페라 스타들을 낳았지만 7년 전, 극장은 개인 소유로 바뀌었다. 그때부터 정보보조와 티켓판매, 기업, '라 스칼라의 친구들'이라는 모임에서 후원을 받고 있다. 부호가 아닌 민간인으로 구성된 '라 스칼라의 친구들'은 갖가지 프로그램을 기획해 회원들의 문화수준과 라 스칼라 극장의 번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을 펴 나가고 있다. 또한 프라다PRADA는 라 스칼라의 후원사로서 극장의 모든 인쇄물과 홍보물을 담당한다. 순수예술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1993년 설립된 프라다 파운데이션은 현대미술 작가를 발굴하고 그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데 주력한다.

일본 \_ 1990년 창립된 일본 메세나협회는 현재 207개 회원사를 두고 활동하고 있다. 도시바는 문화예술 장르에 걸쳐 지원하지만 주로 국제교류에 치중해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999년에는 해외대학, 미술관 연구활동, 국내 단체의 해외 공연, 예술가의 해외 창작활동 등에 3,170만 엔을 지원했다.

전자기기를 생산하는 롤랜드Roland사는 롤랜드 예술문화진흥재단을 통해 주로 음악분야에 지원하고 일본항공JAL의 일항재단은 세계화에 맞는 인재양성과 일본문화를 해외에 소개하고 이를 키우기 위한 국제교류 부문에 집중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밖에 스미토모재단은 문화예술, 학술연구, 국제교류, 특히 국내외 문화재를 발굴하고 보존하는 일을, 아이치은행 교육문화재단은 지역문화와 청소년 문화활동, 사회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

취재 | 홍이현 기자

선진국에선 단순한 이윤추구를 넘어 사회로의 환원과 기업홍보 전략으로도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 각국의 메세나협회는 그런 문화적

지원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유럽은 출판부문 지원을 아우른 기업의 메세나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다.